

평균연령 높지만 가입률은 선두그룹



특수건물의 분포도로 미루어 6개지부중 가장 막내가 되는 전주지부(지부장 金秉澤)는 의견상 매우 조용하고 따뜻한 감을 느끼게 한다.

전통적인 문화도시로 손꼽히는 전주의 기풍처럼 전직원은 인화단결의 기치아래 모두가 쉽게 한 가족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지부가족이라야 모두 9명(사무보조원 1명 포함)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처리하는 업무량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전주지부가 책정한 85회계년도 보험료거수목표액은 3억5천6백만원으로 가스보험부문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문제없이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8월말 현재 특수건물 점검대상은 일반 3백19건, 아파트와 시장등 나머지 1백15건등 모두 4백34건으로 세대수로 따지면 1만

2천세대에 이르지만 전체 평균 가입률은 전수로 91.9%(세대별 92.2%)에 달해 아주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스보험 가입대상은 1백7건으로 가입률이 78.5%에 달해 규모의 영세성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촉구공문을 발송해 주는 등 시·도관계자와의 협조가 어느 지역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인적 구성면에서 볼때 6개지부 가운데 전주지부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고 비록 협회가 안고있는 본질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점점이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점점적이 보험을 권유해야 하고, 가스보험은 초기에 개인별로 책임을 주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다소 어렵고 안타깝다는 것.

김지부장의 부하를 아끼는 이러한 배려가 있었기에

업무과 3명, 점검과 3명의 인원으로도 4백30여건(점검단위)의 특수건물을 아무런 탈없이 관장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전주지부 소관의 공동주택 세대수는 무려 1만 3백81세대로 이중 60%이상이 50세대 미만으로 관리사무소조차 제대로 구경할 수 없는 연립주택임에도 가입률이 91.8%에 이르고 있음은 아파트를 전담하는 직원(차장급)의 지극한 정성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 부임한지 1년이 못되는 김지부장은 항상 직원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결코 상대방에게 관료적인 인상을 심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전주지부에서는 점검을 거부한다거나 진정을 해오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그동안 말썽없이 업무를 무난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전주지부가 과연 적자점포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다. 우선 특수건물과 가스보험 전수가 6개지부중 가장 적은 것이 사실이다. 외형상 적자점포를 면하려면 보험료수입이 5억원선은 넘어야 하는데도 올해 보험료 거수목표는 3억5천6백만원으로 크게 미달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지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84회계년도만 하더라도 삼양사 1억3천여만원을 비롯, 무려 20건 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전주지부에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보험료 규모는 5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은행대출과 관련해 물건 소재지는 전주이면서 보험료수입은 관련은행이 있는 서울본부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부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탓으로 항상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나 규모가 적은 전주지부에서 받는 타격은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교보빌딩을 비롯해서 전주관광호텔, 코아호텔등 4층이상 건물이 신규로 약간씩 늘어나고 있으므로 거수보험료 규모가 현재의 수준이하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결코 전주지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체 평균가입률 92%이상 유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전주지부의 자랑거리도 많다.

우선 지부장을 뺀 전직원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서 업무의 기동성이 최대로 보장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순수 타자를 함으로써 사무능률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부개설 이래 보험계약을 면에서 광주지부와 계속 1~2위를(2위가 더 많다) 다투어오고 있을 뿐더러 미가입물건에 대해선 단 1건의 고발도 없이 친절환 안내 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최대로 존중,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책임의식과 긍지를 심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지부장은 손보업계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보우회의 회장직과 보험학회 전북지부 부지부장직을 겸하면서 대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은 지체부자유자와 전직원이 자매결연을 맺어 불우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1인1통장갖기 운동을 전개,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기와 쏘가리같은 민물고기를 섞어서 만드는 「오모가리탕」과 한일관의 콩나물국밥으로 유명한 전주에서도 심장부에 위치한 자동차보험빌딩에 세들어있는 전주지부는 비록 보험료 거수액이 적어서 안타깝기는 하나 본부계약본을 합할때 결코 적자점포는 아니며 또 적자점포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단호한 결의 아래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

김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신규직원 채용때 보험과 점검실무를 함께 수습하도록 한 협회방침은 매우 바람직스러우나 보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점검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부와 부산지부의 경우 그 규모를 생각해서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야전사령관 격인 전주지부장의 자신에 찬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격정거리나 시름이 저절로 사라질 법하다. ■